

# 전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지원

## 시, 시·출연기관 공공구매 담당자 우선구매 교육 실시

전주시가 우선구매 활성화로 취약계층에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보를 돕는다.

시는 20일 각 부서와 산하기관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을 했다.

사회적경제기업은 (예비)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업을 통

해 얻은 수익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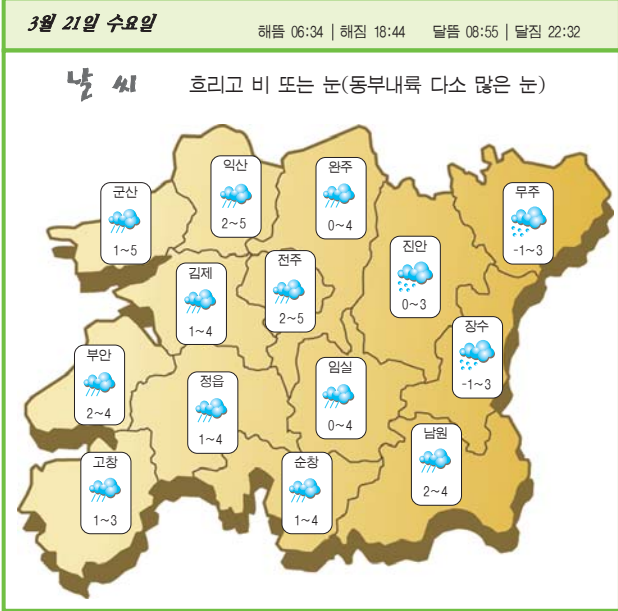
이날 교육에 전주시 150개 전 부서와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출연기관의 계약·지출 담당자들을 초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필요성에 대해 안내했다.

우선구매 설명회에서는 전북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전문위원이 강사로 초청돼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및 우선구매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.

또한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수부서인 도시재생과와 완산구 가족청소년과, 덕진구 인후1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.

이외에도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핸드메이드 수공예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,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진행됐다.

핸드메이드 한지공예 체험에 참여한 공공구매 담당자는 "전주시 사회적기업의 한지상품이 아름답고 우수하다는 것을 실감했다"며 "예산을 집행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우선구매에 적극 앞장서겠다"고 말했다. /채규남 기자



“학교 명예를 위해” 호원대학교가 20일 대학 문화체육회관에서 2018학년도 스포츠단 출정식 및 씨름단 창단식을 가졌다.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## 시민감사관 상반기 실지감사 대상 선정 협의

###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 열려... 상반기 실지감사 4월 16~27일 진행

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가 지난 19일 오후 도교육청 8층에서 열렸다.

이날 협의회는 시민감사관 5명, 자체 감사담당공무원 4명 등 총 9명이 참석, 상반기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대상 선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.

시민감사관 실지감사는 상·하반기에 각각 열흘간 실시하며, 상반기 실지감사는 4월 16~27일 진행할 예정이다.

실지감사 대상은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항으로, ▲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공사 ▲2억 원 이상의 용역과 1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 ▲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시민감사관이 협의한 사항 ▲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.

시민감사관은 감사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하게 되며, 도교육청은 의견서 접수 후 1개

월 내에 감사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.

한편 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·조사 및 평가를 위해 외부에서 위촉한 자로,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이다. 도교육청은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. /이성민 기자

## 원광대 이문영, 전국대학·호남지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 선임



이문영 원광대학교 입학관리처장(사진)이 협회 임원회의에서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 및 호남지역입학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다.

임기는 2019년 2월까지 1년이다.

이문영 회장은 “동시에 두 협의회 회장에 선임돼 어깨가 매우 무겁다”며, “점점 감소하는 학생인구에 따라 대학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, 지역별·유형별로 대학들 의견을 잘 반영해 대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.

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는 국·공립대를 포함한 202개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. /익성=장원영 기자

## 전주시 드림스타트, 어린이 맞춤 학습지 지원 서비스 실시

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.

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전주시 지역 학습지 업체 3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, 이달부터 드림스타트 아동 중 학습지 지원

원이 필요한 아동 55명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‘아이희망꿈터 학습지 지원 사업’을 한다고 20일 밝혔다.

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. /채규남 기자

##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발

### 전주시, 서학동예술마을 주민설명회 개최

전주시가 서학동예술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.

빗물이용 시범마을은 마을단위로 집적화된 빗물이용 시설과 관련 시설을 구축, 물 순환 체계구축(회복) 등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로 올해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된 서학동예술마을이 전국 1호가 된다.

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·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여건을 고려한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일 서학동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.

이날 설명회에서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안내했다. 또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했다.

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서학동예술마을은 2동, 3동, 4동 주민들은 향후 빗물공동체를 구성, ‘가정에

서 떨어지는 빗물은 가정에서 처리한다’를 기본방향으로 ‘한 가정빗물 유출 제로(최소)화 협약’을 체결하게 된다. 이후 빗물을 테마로 한 다양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.

이 사업을 통해 서학동예술마을이 마을단위로 집적화된 빗물이용 시설 및 관련 시설이 구축된 빗물이용 시범마을로 탈바꿈되면 친환경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재이용하여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.

또 친환경 대체 수자원인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물 순환체계를 회복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.

순영철 하수과장은 “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며 “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·관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빗물마을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 /채규남 기자

전주매일 전자신문 [www.jmaeil.com](http://www.jmaeil.com)

구독·광고문의 288-9700

본인이 **똥똥** 하다고 생각하시면  
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?

뱃살, 내장지방,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 
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

상담전화: 010-3655-9009  
블로그: <http://kangsb1959.blog.me>  
메일: [ndtherapy119@gmail.com](mailto:ndtherapy119@gmail.com)

호소다이어트, 해독 프로그램 전문